

HO회의는 11명의 위원과 9명의 초청전문가, 8명의 서기로서 이루어져 광산의 환경, 건강장해 (호흡기질환, 공업중독과 피부질환, 운동기장해, 심리학행동과학적문제) 산업재해, 보건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집필자의 원고초안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광산재해와 진폐증 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이 진폐증 발효와 아울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 \*

금번 국제학회가 열렸던 핏츠버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광산지역에 위치하여 철강산업

과 더불어 미국 기간산업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며, 광산산업보건의 본거지인 핏츠버그 대학의 보건대학원은 2차 세계대전직후 메톤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6개 학과의 박사,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보건학과는 이 중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학과로서 80명의 교수진에 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의과대학출신과 외국인은 각각 10%를 차지하며 약 절반이 여학생인 것도 특색이다. 또한 동 대학은 많은 산업체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어 연간 6,000만불 (한화 약 500억원)의 연구비를 쓰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부럽기 한이 없는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



---

## ☞ 협회소식 ☞

---



---



---



---

### 전국특수건강진단기관장회의개최

---



---

○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위원장:조규상) 회의가 전국 29개 특수건강진단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85.7.12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검진기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의되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은 연간계획이 2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여 균형있는 계획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평가되어 하반기에는 치밀한 계획과 집중적인 노력으로 누락사업장 및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근로자 검진사업에 대해 최근 정

부에서는 물론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역내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감진 실시에 중추적·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중점운영기로 협의되었다.

— 원거리 또는 검진대상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직접 출장검진 실시

— 직업병 유소견자의 추적검사와 사후관리 철저

— 대상지역내 유해사업장 및 부서, 검진대상 근로자수 등 기초자료 파악 기록보존

— 수검자에 대한 검진기록 관리유지

— 검진기술정보의 상호교환,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한 진단기술향상 도모

○ 이 밖에 특수검진의 지역책임제 정착

을 위한 실태조사반을 편성, 오는 8-9월중에 전국특수검진기관의 운영실태를 순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 운영에 반영키로 하였다.

---



---

## 전국 지부장·이사 합동연석회의 개최

---



---

○ 당 협회 전국 지부장 및 실행이사합동회의가 조규상 회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 금번 합동회의에서 조 회장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특수검진에 대한 정부,사업주,근로자 단체의 관심과 요구에 충족키 위한 검진자세 재확립 및 지역에 있어서의 기능적 구심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따라 각지부도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운영체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부도 지역특성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기관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

## 전국 사무국장 회의

---



---

○ 당 협회 제 5 차 전국 사무국장회의가 7.13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분석평가와 아울러 하반기 업무지침이 시달되었다.

○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은 경기침체 등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특수검진 대상근로자 및 사업장이 다수 누락될 것으로

예측되어 누락자 방지를 위하여 하반기에 보다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평가 되었음.

○ 한편 최병수 업무이사는 아직까지도 일부 직원중에는 과거 관습적이고 타성적인 업무성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직원 개개인의 자각적인 협조와 분발을 촉구하였으며 사업의 추진도 산업보건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인식하여 명실공히 근로자 건강보호에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여 줄것을 사무국장에게 강력히 강조하였다.

---



---

## 본 협회 조규상 회장, 계원철 부회장 위문

---



---

조 규상 회장은 지난 6월 미국 국제학회 참석후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드네라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인 계 원철 박사를 방문 위문하였다.

계 박사는 지난 해 5월 “길렌바레씨” 병으로 연세 대학병원에서 가료 후 도미하여 재활치료중인데 그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8월중 귀국할 예정이다.

